

Bechtel사의 Laspa부사장은 작년에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 했으나 자사는 이에 대해 계속 관심을 둘 것이며 전력회사, 제작회사, 서비스업체들은 단일 발전소 전력회사들의 서비스 종합관리방법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 회사가 참여하든 안하든 이와 같은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며 우리 회사도 이를 매우 실현성있는 안으로 보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美國발전소 스크램發生率 (1988年 上半期)

TVA의 Sequoyah-2 발전소는 1988년 상반기 기준 전미 원자력 발전소중에서 가장 높은 스크램발생율을 기록했으며 7개 발전소는 이 기간중 한번의 스크램도 없이 운전되었다.

Sequoyah-2 발전소는 지난 6월 계통에 재병입할 때 3주동안 5번이나 스크램됐으며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임계시간 785시간동안 7번의 스크램을 기록했다. 이것은 임계운전 1,000시간당 평균 8.92번의 스크램에 해당한다.

Perry-1과 Catawba-2 발전소도 이 기간중에 7번 스크램되었지만 실제 임계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에 평균 스크램회수는 Sequoyah 발전소보다 훨씬 적었다. 1988년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가장 높은 스크램발생율을 기록한 발전소들은 다음과 같다.

발전소	스크램발생율 (스크램회수 / 1,000임계시간)	임계시간
Sequoyah-2	8.92	785
Nine Mile point-2	3.79	1583
Catawba-2	3.11	2252
Hatch-2	2.40	2087
Perry	2.29	3056
Fermi-2	1.92	2078
Haddam Neck	1.70	1760
Brunswick-2	1.42	1411
Callaway	1.26	3960
Palo Verde-1	1.16	2579

英國

CEGB, 다음 PWR型으로 佛의 N4를 注目

英國은 성공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原子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英國 中央電力廳(CEGB)은 Sizewell B 設計를 기본으로 하는 약 5기의 영국 PWR에 후속될 설계를 모색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설계의 發電所는 Sizewell B 시리즈가 거의 완료되는 1990년대 말에 건설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Sizewell B에 대한 경제성은 1980년대 중반에 있는 청문회의 분석에서 國産石炭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고 판명되었다. 그러나 영국의 民間電力供給業界는 國産燃料의 거의 절반 가격인 수입석탄이나 풍부하게 공급되는 天然가스를 선택할 것으로 생각된다.

CEGB는 이러한 燃料과 경쟁하기 위해서 改良型 PWR發電所의 設計에 있어서 세가지의 중요한 변경을 도입하고자 하는데, 이 변경사항들은 현재 프랑스 Chooz에 건설중인 프랑스 N4設計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CEGB와 프랑스電力公社(EdF) 間에는 이미 영국으로 N4기술 전수 가능성에 대한 예비협상을 갖었다.

첫번째 설계변경은 Sizewell B설계의 2대의 660MW급 발전기를 1대의 터보발전기로 대체함으로써 資本費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두번째는 資本費와 運營費를 절약하기 위해 同一한 PWR을 2기씩 건설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이미 이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실증하고 있다.

세번째는 실질적으로 同一한 설계의 原子爐에 더 긴 核燃料要素를 사용함으로써 20%의 出力增加(1,175MW 대신 1,400MW)를 가져올 수 있다.

CEGB는 이 세가지 변경사항을 1990년대 중반에 있을 청문회에 제출할 설계에 모두 포함시킬 계획으로 전문기술진이 Torness와 Heysham 2號機 改良가스冷却爐에 대한 작업을 끝내는 내년부터 이 새로운 설계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安全性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다음세기 초에 運轉開始를 위해 原子力發電會社("Big G")가 1994년까지 2,800MW PWR發電所에 대한 계획동의를 받도록 그 업무가 계승될 것이다. 5年間の 준비작업비용은 1억파운드에 달한다.

日本

政府次元의 原電弘報對策會 發足

日本 科學技術廳은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한층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원자력홍보대책연락회」(회장, 平野拓也 원자력국장)의 제1회 회합을 개최했다. 앞으로 관민일체가 된 근본적인 홍보활동의 강화와 국제심포지움의 개최, 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 등에 조사단 파견 등을 목표로 한다.

동 연락회는 과기청의 관련 실과장, 動燃事業團, 原研, 放醫研의 간부로 구성되며, 각 기관의 전문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과학적 근거에 의한 홍보대책을 검토함과 동시에 상호의 연락·조정을 충분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처음에 平野원자력국장이 인사를 통해 「원자력에 대한 상황은 어렵다. 체르노빌사고가 원인인 것은 물론이지만, 현재의 반대운동은 종래의 패턴과 달리 주부층, 젊은 층에 까지 퍼지고 있어서 매우 우려된다」는 현황을 피력하고, 「일부에서는 과학적, 학문적 주장을 무시하고 쓸데없이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는 일도

있고, 이와 같은 것에는 伊藤과기청장관이 말하였듯이 정정당당히 반론을 제기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원자력홍보의 대처에 대해 각 기관으로부터의 보고, 강사를 각지에 파견하는 것 등이 의논되었다.

이 중에서 최근의 反原子力運動에 대해 분석하고 종래의 운동과 비교했을 경우 ① 감정적·정서적 반대, ② 초보자에게 이해하기 쉽고, 단순명쾌한 論旨, ③ 대중잡지 등의 매스미디어를 통해 일반대중을 대상, ④ 반대운동의 횡적 연결, ⑤ 운동 담당자는 도시에서의 젊은층과 주부층 등이 중심, ⑥ 전국 각지에서의 강연회 개최 등 근본적인 운동 등이 특징이라고 했다.

또 정부 전체로서 PA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부처 연락회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도 보고되었다.

국제적으로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경제협력개발기구·원자력기관(OECD/NEA)과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내년 초에도 일본에서 PA관계의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기로 했다.

그리고 반대운동에서 해외에서의 사고 발생지 주변의 상황이 인용되기 때문에 미국TMI, 영국 세라필드, 프랑스, 소련 체르노빌 등에 조사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국내적으로는 문화서클 등에 강사파견, 일반 시민에 대한 설명회 개최, 그를 위한 강사·추진측 연사의 양성, 방사선측정기의 대출 등을 추진하는 외에, 과기청의 원자력모니터의 경험자를 각지의 오피니어링으로서 육성하는 방침 등을 제의했다.

屋內라폰피폭 조사

일본원자력학회 등 49개 단체가 공동개최하는 「제25회 理工學에서의 동위원소연구발표회」가 7월 4일부터 7월 6일까지 3일간 東京·스키가세키의 국립교육관에서 개최되었다.